

선혜국어

〈개정된 문장 부호와 추가된 표준어 목록〉

개정된 문장 부호

부록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마침표(.)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붙임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ㄴ.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붙임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ㄱ.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ㄴ.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ㄱ.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ㄴ.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압록강은 흐른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건강한 몸 만들기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1919. 3. 1. 10. 1. ~10. 12.

-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네, 지금 가겠습니다.

-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다.

나에게도 작은 소망, 이를테면 나만의 정원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열정, 이것이야말로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그 사실, 넌 알고 있었지?

-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니님.

다시 보자, 한강수야.

-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들을 맞았다.

붙임1 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붙임2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쓴다.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시다.

붙임 ‘쉼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5. 가운뎃점(·)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한(韓)·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분석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제5편

다만, 이때는 가운데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상·중·하위권 금·은·동메달 통권 제54·55·56호

문법 이때는 가운데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상, 중, 하위권 금, 은, 동메달 통권 제54, 55, 56호

6.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두시연해 6:15(두시연해 제6권 제15장)

(4) **의존 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65:60(65 대 60)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문법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백남준은 2005년에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15. 줄표(—)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이다.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보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19. 숨김표(○,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였다.

20. 빠짐표(□)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21.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빨리 말해!”
“…….”

(3)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문법 1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문법 2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문법 3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3)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추가된 표준어 목록과 빈출 어휘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 국립국어원(2011년, 2014년)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6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복숭아뼈	복사뼈
구안와사	구안괘사	빠지다	빼치다
굽신*	굽실	세간살이	세간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눈두덩이	눈두덩	초장초	작장초
등물	목물 (= 등목)	토란대	고운대
맨날	만날	허접쓰레기	허섭쓰레기
못자리	뭇자리	흙담	토담

*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굽신굽신, 굽신굽신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3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길래	~기에	~길래: ‘~기에’의 구어적 표현
개기다	개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 개개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개발새발	괴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임.
꼬시다	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꼬시다: ‘피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피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 대로 끌다.
나래	날개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
내음	냄새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놀잇감	장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눈꼬리	눈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예 매서운 눈초리 • 눈꼬리: 눈의 귀 쪽으로 꺾인 부분
똥지	똥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똥지: (주로 ‘결다, 놓다’와 함께 쓰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 똥죽: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똥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떨구다	떨어뜨리다	‘떨구다’에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 있음.
뜨락	뜰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하는 뜻이 있음.
먹거리	먹을거리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름.

메꾸다	메우다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사그라들다	사그라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 • 사그라지다: 삭아서 없어지다.
섬찝*	섬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찝: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 섬뜩: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속앓이	속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앓이: 「1」 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2」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 • 속병: 「1」 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위장병01’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여 생긴 마음의 심한 아픔
손주	손자(孫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	연방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횡하니	횡허케	횡허케: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끼적거리다	끼적거리다	”
두리몽실하다	두루몽술하다	”
맨송맨송/ 맹송맹송	맨송맨송	”
바둥바둥	바둥바둥	”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
아웅다웅	아웅다웅	”
야멸차다	야멸차다	”
오손도손	오순도순	”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 허접스럽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 ‘섬찝’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섬찝하다, 섬찝섬찝, 섬찝섬찝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견	짜장면	자장면
폼새	폼세		

제5편

■ **빈출 관용어구**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의미
괴발개발(개발새발)	개발쇠발	글씨를 이리저리 함부로 갈겨 써 놓은 모양
대증요법(對症療法)	대중요법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동고동락(同苦同樂)	동거동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함.
미주알고주알	메주알고주알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
방방곡곡(坊坊曲曲)	방방곳곳	한 군데도 빼놓지 아니한 모든 곳
성대모사(聲帶模寫)	성대모사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
사주단지(四柱單子)	사주단지	혼인이 정해진 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
삼우제(三虞祭)	삼오제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쇠털같이 많은 날	새털같이 많은 날	아주 많은 날들 비유
쉬파리 꿩똥	쇠파리 꿩똥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모여 있는 경우
야반도주(夜半逃走)	야밤도주	남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도망함.
아연실색(啞然失色)	아연질색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람.
양수겸장(兩手兼掌)	양수겸장	① 장기에서, 두 개의 말이 한꺼번에 장을 부름. ② 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곡백과(五穀百果)	오곡백화	온갖 곡식과 과일
옴짝달싹(옴짝달싹)	옴짝달짝, 꼼짝달짝	몸을 아주 조금 움직이는 모양
운용(運用)의 묘	운영의 묘	적당히 부리어 쓰는 묘미
절체절명(絕體絕命)	절대절명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하는 말
티격태격	티각태각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이리니저러니 시비를 따지며 가리는 모양
풍비박산(風飛雹散)	풍지박산	사방으로 날아 흩어져 산산조각이 남.
헐헐단신(子孓單身)	홀홀단신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 **빠르게 훑는 표준어와 빈출 어휘**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어휘 뜻
가르마	가리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가른 금
가무러지다 까무러지다	까무라치다	① 정신이 가물가물하여지다. ② 촛불이나 등잔불 따위가 약해져서 꺼질 듯 말 듯 하게 되다.
가무러치다 까무러치다	까무라치다	얼마 동안 정신을 잃고 죽은 사람처럼 되다.
가열하다	가열차다	싸움이나 경기 따위가 가혹하고 격렬하다.
가장자리	가상자리, 가생이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
갈고리	살구리 갈구리	물건을 걸거나 끌어 달길 때 쓰는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진 물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어휘 뜻
갈림길	갈랫길	① 여러 갈래로 갈린 길 ②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갈치	칼치	
갓난이	간난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아이
강소주	깡소주	안주 없이 먹는 소주
강술	깡술	안주 없이 마시는 술
갖은	가진	(관형사) 골고루 다 갖춘, 여러 가지의
개개다		① 자꾸 맞닿아서 표면이 닳거나 헤어지거나 벗어지다. ②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개비	개피, 까치	① 가늘게 쪼갠 나무토막이나 기름한 토막의 날개 ② 가늘고 짤막하게 쪼갠 토막을 세는 단위
개평	깨평	노름이나 내기에서 남이 따게 된 몫을 조금 얻어 가지는 것
거꾸로	꺼꾸로	차레나 방향, 또는 형편 따위가 반대로 되게
거드름	저드름	거만스러운 태도
거추장스럽다	저치장스럽다	① 물건이 크고 무거워 다루기가 거북하고 주체스럽다. ② 일 따위가 성가시고 귀찮다.
건널목	간늘목	
걸레	걸래	더러운 곳을 닦거나 흠쳐 내는 데 쓰는 형겅
게거품	개거품	사람이나 동물이 몹시 괴롭거나 흥분했을 때 입에서 나오는 거품 같은 침
걸리다	절리다	① 몸의 일부분이 당기어서 딱딱 부딪치는 것처럼 아프다. ② 남에게 억눌려 기를 펴지 못하다.
결벽증	결백증	병적으로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증상
고동	고동	
곤두박이다	곤두박하다	높은 데서 거꾸로 내리박음을 당하다.
곰장어 먹장어	폼장어	바닷물고기
곰사등이	폼사등이	
곰슬머리	폼슬머리	≡ 고수머리
꽃감	꽃감, 곳감	껍질을 벗기고 꼬챙이에 꿰어서 말린 감
팔시	팔세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괘념	괘념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괴나리봇짐	개나리봇짐	걸어서 먼 길을 떠날 때에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짐
구레나룻	구렛나루	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
구태어	구태어	(부정하는 말과 어울려 쓰이거나 반문하는 문장에 쓰여) 일부러 애써
굽닐다	굽닐다	몸을 굽혔다 일으켰다 하다.

제5편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어휘 뜻
굵벵이	굵벱이	① 누에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몸의 길이가 짧고 뚱뚱하다. ② 동작이 굵프고 느린 사물이나 사람을 비유하는 말
굽실거리다 굽신거리다		① 고개나 허리를 자꾸 가볍게 구부렸다 폈다. ②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자꾸 비굴하게 행동하다.
귀먹다	귀멀다	
귓속말, 귀엣말	귀의 말	남의 귀 가까이 입을 대고 소곤거리는 말
그깟, 그까짓	그깐	겨우 그만한 정도의
기지개	기지계	피곤할 때에 몸을 쪽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긴가민가하다	깡가민가하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다.
깎때기	깎대기	병에 액체를 붓는 데 쓰는 나팔 모양의 기구
깡다구	강다구	악착같이 버티어 나가는 오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
깡충깡충 깡충깡충	깡충깡충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깨나	꽤나	(보조사)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냄.
క్క다리	꺀다리 장다리	키다리
꺼림(칙)하다 꺼름(칙)하다	꺼림직하다	매우 꺼림하다.
꼬라박다	꼬나박다	① 거꾸로 내리박다. ② 돈 따위를 어떤 일에 헛되이 써 버리다.
꼽사리	곱사리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
꼽추	곱추	
꽤나	깨나	① 보통보다 조금 더한 정도로 ② 제법 괜찮을 정도로
팽과리	팽가리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끗발	끝발	① 노름 따위에서, 좋은 깃수가 잇따라 나오는 기세 ② 아주 당당한 권세나 기세
끼어들기	끼여들기	
나그네	나그내	①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② 낯선 남자 어른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낙아채다	나꺀채다	① 낚시줄이나 무엇을 세차게 잡아당기다. ② 남의 물건을 가로채거나 사람을 가로채서 자기편에 두다. ③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받아서 말하다.
날파람둥이	날바람둥이	주책없이 싸다니는 사람
내로라하다	내노라하다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너스레	너스래	① 그릇의 아가리나 바다, 흙구멍이 등에 걸쳐 놓는 막대기 ② 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어놓는 말이나 짓
널빤지	널판지	판판하고 넓게 썬 나뭇조각
노랑이	노랭이	① 속이 좁고 마음 씩씩이가 아주 인색한 사람 ② 털빛이 노란 개 ③ 노란 빛깔의 물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어휘 뜻
뇌졸중	뇌졸증	병의 이름이지만 ‘증(症)’이 아닌 ‘중(中)’을 쓴다.
눈두덩 눈두덩이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눈엣가시	눈의 가시	① 몹시 밍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 ② 남편의 첩을 이르는 말
뒤달하다	닥달하다	남을 단단히 옥박질러서 혼을 내다.
단박(에)	담박(에)	(명사) 그 자리에서 바로
단출하다	단출하다	① 식구나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홀가분하다. ② 일이나 차림차림이 간편하다.
대물림	되물림	사물이나 가업 따위를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 주어 자손이 그것을 이어 나감.
덤불	덤풀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도리어, 되레	도리어, 되려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돌맹이	돌맹이	돌덩이보다 작은 돌
돌부리	돌뿌리	땅 위로 내민 돌맹이의 뾰족한 부분
돌하르방	돌하루방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제주도에서 안녕과 질서를 수호하여 준다고 믿는 수호 석신
동자개	빠가사리	동자갯과의 민물고기
뒤결	뒤안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뒷심	뒷힘	① 남이 뒤에서 도와주는 힘 ② 어떤 일을 끝까지 견디어 내거나 끌고 나가는 힘
들입다	디립다	세차게 마구
맹추	맹초	파계하여 중답지 못한 중을 낮잡아 이르는 말
뜨개질	뜨게질	옷이나 장갑 따위를 실이나 털실로 떠서 만드는 일
뜨물	뜸물	곡식을 씻어 내 부엌에 된 물
뜯개질	뜯개질	해지고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빨래할 옷의 솔기를 뜯어내는 일
마늘종	마늘종	마늘의 꽃줄기. 연한 것은 쪄 먹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다.
만에 하나	만의 하나	(관용어) 아주 매우 드물.
맛보기	맛빼기	① 맛을 보도록 조금 내놓은 음식 ②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험 삼아 해 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먼지떨이	먼지털이	먼지를 떠는 기구
메마르다	매마르다	① 물기가 없고 기름지지 아니하다. ② 살결이 윤기가 없고 까슬까슬하다. ③ 성격, 생활 같은 데에서 느낌이 몹시 무디고 정서가 부족하다. ④ 목소리가 부드럽지 못하고 가칠가칠하다. ⑤ 공기가 건조하다.
무동(舞童)	무동	① 조선 시대에, 궁중의 잔치 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 ② 농악대·결립때 따위에서, 상쇠의 목말을 타고 춤추고 재주 부리던 아이 ③ 북청 사자놀음에 등장하는 인물의 하나. 둘째 마당인 사자놀이의 첫째 거리에 나오며 탈은 쓰지 않는다.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어휘 뜻
무릎쓰다	무릠쓰다	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 ② 뒤집어서 머리에 덮어쓰다.
둥개구름	몽개구름	적운(積雲)
발자국	발자욱	①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 ②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
벌칙금	벌칙금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베개	벼개	잠을 자거나 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물건
별의별	별에별	보통과 다른 갖가지의
복불복	복골복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
볼 장 다 봤다	볼 짱 다 봤다	(관용어) 일이 더 손댈 것도 없이 틀어지다.
불쌍사납다	불쌍사납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보기에 역겹다.
부리나케	불이나케 부리나케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부스러기	부스러지	① 잘게 부스러진 물건 ② 쓸 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 ③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아	부화	① 노엽거나 분한 마음 ② = 허파
붓두껍	붓뚜껍	붓촉에 끼워 두는 뚜껍 붓대보다 조금 굵은 대나 얇은 쇠붙이로 만든다.
비비다	부비다	① 두 물체를 맞대어 문지르다. ② 어떤 재료에 다른 재료를 넣어 한데 버무리다.
빼닮다 빼쏘다	빼다박다 빼박았다	성격이나 모습이 꼭 닮다.
빼치다 빼지다		성이 나서 마음이 토라지다.
사족(四足)	사죽	짐승의 네발 또는 네발 가진 짐승
살바	삿바	씨름에서, 허리와 다리에 둘러 묶어서 손잡이로 쓰는 천
새색시	새악시	갓 결혼한 여자
섬뜩하다 섬찝하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하다.
소곤소곤	소근소근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모양이나 소리
소꿉장난	소꿉장난	소꿉놀이를 하며 노는 장난
소맷귀	소매깃	소맷부리의 구석 부분
소식적	소시적	젊었을 때
소쿠리	소꾸리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손사래	손사래	어떤 말이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손을 펴서 휘젓는 일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어휘 뜻
수그러들다	사그러들다	① 안으로 굽어 들거나 기울어져 들어간다. ② 형세나 기세가 점점 줄어든다. ※ '사그라들다/사그러지다'는 표준어
숙맥	쑥맥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菽麥不辨'에서 나온 말이다.
술래잡기	술레잡기	아이들 놀이의 하나
췌	쉬흔	숫자 50
시시닥거리다	히히닥거리다	실없이 웃으면서 조금 작은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다.
시젯말	시셋말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
식겁하다	시겁하다	뜻밖에 놀라 겁을 먹다.
실날갈다	실날갈다	① 아주 가늘다. ② 목숨이나 희망 등이 가는 실같이 미미하여 끊어질 듯하다.
심보	심뽀	[심뽀] 마음보
십상	쉽상	열에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음. 十常八九
쌍꺼풀 쌍꺼풀	쌍거풀	겹으로 된 눈꺼풀. 또는 그런 눈
아귀찜	아구찜	아귀를 콩나물, 미나리, 미더덕 따위의 재료와 함께 갖은 양념을 하고 고춧가루와 녹말풀을 넣어 걸쭉하게 찜 음식
아등바등	아동바동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모양
아리송하다	아리송하다	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분간하기 어렵다. ②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떠오를 듯하면서도 떠오르지 않다.
아쁠싸	아쁠사	일이 잘못되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뉘우칠 때 가볍게 나오는 소리
안스럽다	안스럽다	①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쳤을 때 마음에 미안하고 딱하다. ②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의 딱한 형편이 마음이 아프고 가엾다.
알쏭달쏭	알송달송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얼른 분간이 안 되는 모양
어릿광대	어리광대	① 곡예나 연극 등에서 막간에 나와 우습고 재미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판을 어울리게 하는 사람 ② 무슨 일에 앞잡이로 나서서 그 일을 시작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처구니없다	얼척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억지	어저지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
억지춘향	억지춘양	(관용어)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어지는 경우를 비유
염두	염두	감히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먹음. 또는 그 마음
영큼하다	응큼하다	① 영똥한 욕심으로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려는 태도가 있다. ② 보기와 달리 실속 있다.
엔간하다	웬간한다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다.
여봐란듯이	봐란듯이, 여보란듯이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어휘 뜻
연거푸	연거퍼	잇따라 여러 번 되풀이하여
염두	엄두	생각의 시초
오도방정	오도방정	몹시 방정맞은 행동
오랜만	오랫만	어떤 일이 있는 때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뒤 '오래간만'의 준말
오랫동안	오랜동안	시간상으로 썩 긴 동안
오지랴	오지랍	웃웃이나 윷도리에 입은 겉옷의 앞자락
옥에 티	옥의 티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 있는 사소한 흠
우려내다	울귀내다	① 물체를 액체에 담가 성분, 맛, 빛깔 등이 배어들게 하다. ② 생각이나 감정을 끄집어내다. ③ 피거나 위협하여서 자신에게 필요한 돈이나 물품을 빼내다.
욱여널다	우겨널다	주위에서 중심으로 함부로 밀어 넣다.
움초리다	움추리다	① 몸이나 몸의 일부를 몹시 오그리어 작아지게 하다. ② 겁을 먹거나 위압감 때문에 몹시 기가 꺾이거나 풀이 죽다.
움큼	응큼	손으로 한 줌 움켜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웃음엿소리	웃음의 소리	웃기느라고 하는 말
웃음엿짓	웃음의 짓	웃기느라고 하는 짓
육개장	육계장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넣고, 얼큰하게 갖은 양념을 하여 끓인 국
육박지르다	육박지르다	심하게 짓눌러 기를 꺾다.
이음매	이음새	두 물체를 이은 자리
이음새	이음매	두 물체를 이은 모양새
임연수어	이면수	취노래밧과의 바닷물고기
작달막하다	작달막하다	키가 몸피에 비하여 꽤 작다.
장단지	장단지	종아리의 살이 불룩한 부분
장아찌	짱아찌	오이, 무, 마늘 따위의 야채를 간장이나 소금물에 담가 놓거나 된장, 고추장에 박았다가 조금씩 꺼내 양념하여서 오래 두고 먹는 음식
족두리	족두리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위는 대개 여섯 모가 지고 아래는 둥글며, 보통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민다.
족제비	족제비	동물의 하나
족집게	족집게	① 주로 잔털이나 가시 따위를 뽑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조그마한 기구 ②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내거나 잘 알아맞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졸병	졸병	직위가 낮은 병사
주르륵	주루룩	① 굵은 물줄기가 빠르게 잠깐 흐르다가 그치는 소리나 모양 ② 물건이 비탈진 곳에서 빠르게 잠깐 미끄러져 내리다가 멎는 모양
주꾸미	주꾸미	문어과의 연체동물
주섬주섬	주엄주엄	① 여기저기 널려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거두는 모양 ② 조리에 맞지 아니하게 이 말 저 말 하는 모양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어휘 뜻
주워듣다	주서듣다	귓결에 한마디씩 얻어듣다.
줄곧	줄창	끊임없이 잇따라
진눈깨비	진눈개비	비가 섞여 내리는 눈
짓궂다	짓꾼은, 짓궂다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
짜깁기	짜집기	①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울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깎는 일 ② 기존의 글이나 영화 따위를 편집하여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일
째째하다	째째하다	① 너무 적거나 하찮아서 시시하고 신통치 않다. ② 사람이 잘고 인색하다.
찌푸리다	찌뿌리다	① 날씨가 매우 음산하게 흐려지다. ② 얼굴의 근육이나 눈살 따위를 몹시 찡그리다.
착잡하다	착참하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다.
천만의 말씀	천만에 말씀	(관용어) 남의 칭찬이나 사례에 대하여 사양할 때 쓰는 말
철석(鐵石)같다	철씩같다	마음이나 의지, 약속 따위가 매우 굳고 단단하다.
초승달	초생달	초승에 뜨는 달
초주검	초죽음	두들겨 맞거나 병이 깊어서 거의 다 죽게 된 상태. 또는 피곤에 지쳐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치고받다	치고박다	서로 말로 다투거나 실제로 때리면서 싸우다.
칠흑	칠흙	웃칠처럼 검고 광택이 있음. 또는 그런 빛깔
켁기다	캐기다	①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 ② 마음속으로 겁이 나고 탈이 날까 불안해하다. ③ 마주 버티다. ④ 맞당기어 팽팽하게 만들다.
털복숭이	털복숭이	털이 많이 난 것
텅석부리	텅석부리	짧고 더부룩한 수염이 난 사람
통틀어	통털어	있는 대로 모두 합하여
트림	트름	먹은 음식이 위에서 잘 소화되지 아니하여서 생긴 가스가 입으로 복받쳐 나옴.
파란색	파랑색	색(色)을 가리킬 때는 ‘ㅇ’ 받침을 쓰지 않는다.
하늘의 별 따기	하늘에 별 따기	(속담)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하마터면	하마트면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 위험한 상황을 겨우 벗어났을 때에 쓰는 말이다.
하염없다	하옴없다	① 시름에 싸여 멍하니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생각이 없다. ② 어떤 행동이나 심리 상태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한가락	한가닥	어떤 방면에서 썩 훌륭한 재주나 솜씨
해코지	해꼬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것
허구하다, 허구한	허구헌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어휘 뜻
헝가래	헹가래	사람의 몸을 번쩍 들어 자꾸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는 일
호래자식 후래자식	호로자식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훈꾸멍나다	훈구멍나다	‘훈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훈쫄나다	훈줄나다	① 몹시 훈나다. ② 매우 훌륭하여 정신이 흐릴 정도가 되다.
황석어젖	황새기젖	황석어로 담근 젖
헹하다	횡하다, 횡하다	① 무슨 일이나 막힘이 없이 다 잘 알아 매우 환하다. ② 구멍 따위가 막힌 데 없이 매우 시원스럽게 뚫려 있다. ③ = 헹헹그렇하다 ④ 눈이 속 들어가 보이고 정기가 없다.
휘둥그레지다	휘둥그레지다	놀라거나 두려워서 눈이 크고 둥그렇게 되다.
흐리멍덩하다	흐리멍텅하다	① 정신이 맑지 못하고 흐리다. ② 옳고 그름의 구별이나 하는 일 따위가 아주 흐릿하여 분명하지 아니하다. ③ 기억이 또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다. ④ 귀에 들리는 것이 희미하다.
희한(稀罕)하다	희안하다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

04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자법(轉字法)과 전음법(轉音法)

전자법은 문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이고, 전음법은 소리로 바꾸어 옮겨 적는 방식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인 소리를 옮겨 적는 방식이므로 전음법을 따르는 것이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